
제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일시 1956년11월23일(단기4289년)(금) 상오10시30분

제6회임시회개회식순

1. 개회
 2. 국민의례
 3. 식사
 4. 인사
 5. 만세삼창
 6. 폐회
-

(10시 30분 개식)

○시정과장 신용석; 즉금부터 제6회임시회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국민의례를 거행)

다음은 의장께서 식사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의장 김진용; 오늘 제6회임시회를 열게되었습니다. 9월5일 이후 제5차나 임시회를 마쳐서 그동안내부기구구성이라든지 기타 긴급한 여러 가지일에 대해서 다섯 번에 걸쳐 많이 의원여러분께서 노력해주셔서 순조로히 진행된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는 그동안 여러분께서 많은 노력하신결과의 시정감사 보고 기타 시일반회계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기타사항등 여러 가지 안건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대해서는 언제든지 우리가 얘기한것과같이 진지한태도를 가지고 신중하게 신속하게 이것을 처리해서 시민일반의 복리를 위한다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의자신이 여기에대해서자경자신해서 진지한 태도를 갖어서 심의해주시기를 바라는바이올시다. 특별히 물론 이 사회상

이 여러 가지 혼잡하고 또 우리의회로 말하면 발족한지 석달 밖에 안되서 서로 미숙한 서투른 일이 많고 의원동지간에도 철저히 단합이 됐다는 것을 확정해서 말하기 어렵습니다. 또 사회상으로 볼때 시의회에 대해서 시민의 복리증진에 얼마나 공헌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반시민은 의회가 곧 발족되면 시민에게 그만큼 복리가 미치리라고 믿고있는 것같으나 실제로 우리직무한계로 볼때 행정부와의회부 여기는 구분히 분명히 있습니다. 이구분에 대해서 직무상한계의구분이고 이것을 행정부나의회부가 서로 일치해서 협조합심하는데 대해서 시민의 복리를 증진한다는 데 대해서는 일반이올시다. 이것을 일반이 이해 못하고 의회 생기면 곧 복리가 있을줄로 알고 남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이 많은점을 생각할 때 대단히 송구스러운 일이많습니다. 이점을 우리는 특별히 생각해서 제6회 임시회의를 비롯해서 다음 오는 회기는 대단히 시일이 다대히 끌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때는 우리가 의원여러분께서 특별히 가일층 진지한태도로 자경자신하셔서 정확하고 민활한 심의를 계속해주시기를 바라마지않습니다. 오늘 제6회 임시회의를 여는데 대해서 이말씀으로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시정과장 신용석; 다음은 시장님의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부시장 신용우; 시장께서 이번주일초부터 편찮아서 출근을 못하고계십니다.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6회임시회의를 개최함에제하여 몇마디 인사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자치행정을 수행함에있어 중박적인역할을 담당하고계신 여러분의 협조아래 수도시정면이날로 진전의도를가하게됨을 경하하여 마지않은바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민의를 토대로한 지방행정을 유효적절히 실시되도록 그 방향과 기반을 확립하여주신 여러분의업적의결과이라고 믿는바로서 그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번 회기에 있어 심의를받고저하는사안은 당면한 예산추가경정안을 비롯하여 시정감사결과처리등 중요한 안건들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각위께서는 지난번 시정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시재정형편과 행정실태에 대하여 심이분 파악하셨을줄로 짐작됩니다만은 이것을 기초로 하시여 진지하신 심의결정으로서 자치행정의 실효를 더욱 빛나게 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제반안전심의과정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여러분의 의사는 이를 심분존중하여 시정면에 유루없이 침투반영시키고저 할뿐아니라 나아가서는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복지행정완수에 어김이 없도록 하고저하오니 헤량하시고 일○ 긴밀하신협조를 부탁드려맞이않는바입니다. 간략하오나 이상으로써 인사말씀에 대합니다.

단기4289년11월23일

서울특별시장 고 재 봉

○시정과장 신용석; 다음은 만세삼창을 부의장 선창으로 불러겠습니다.

(만세삼창 제창)

이상으로서 제6회임사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10시 40분 폐식)